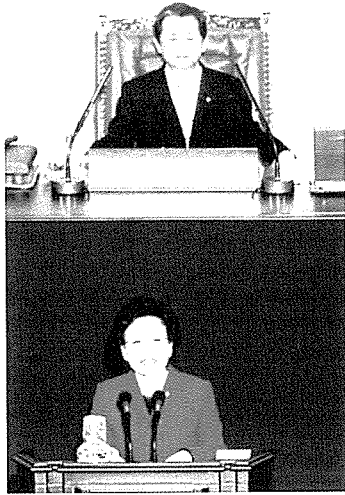


# NEWS & PLUS

## »» 국회 장복심 의원, '산재, 월요일·점심시간 직전 주의' 발표



2003년 이후 산업재해 발생 및 사망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요일 및 점심시간 직전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와 산업재해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표1 참조)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금년 5월까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는 월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 산업재해 사망자 2,923명 중 월요일에 사망한 자가 17.3%인 505명, 2004년은 총 2,825명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17.3%인 488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 같은 추세는 2005년 5월까지도 이어져 총 1,013명의 사망자 중 월요일 사망자가 19.1%인 19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외에 화요일이 산업재해 사망

표 1 | 연도별·요일별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

발생요일	2003년	비율	2004년	비율	2005년5월	비율
일요일	205	8.55	214	7.57	73	7.20
월요일	505	17.27	488	17.27	193	19.05
화요일	471	16.11	452	16.00	162	15.99
수요일	434	14.84	445	15.75	159	15.69
목요일	439	15.01	429	15.18	154	15.20
금요일	437	14.95	430	15.22	147	14.51
토요일	387	13.23	367	12.99	125	12.33
총 계	2,923	100	2,825	100	1,013	100

표 2 | 연도별·시간대별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

발생시간	2003년	비율	2004년	비율	2005년5월	비율
0~2시전	330	11.28	326	11.53	147	14.51
2~4시전	64	2.18	56	1.98	19	1.87
4~6시전	97	3.31	97	3.43	34	3.35
6~8시전	182	6.22	154	5.45	54	5.33
8~10시전	392	13.41	347	12.28	117	11.53
10~12시전	542	18.54	527	18.65	179	17.67
12~14시전	281	9.61	254	8.99	87	8.58
14~16시전	374	12.79	337	11.92	128	12.63
16~18시전	334	11.42	338	11.96	102	10.06
18~20시전	135	4.61	123	4.35	53	5.23
20~22시전	101	3.45	119	4.21	46	4.54
22~24시전	91	3.11	83	2.93	30	2.96
분류불능	0	0	64	2.26	17	1.67
총 계	2,923	100	2,825	100	1,013	100

자 발생율(2003년 16.11%, 2004년 16%, 2005년 5월 현재 15.99%)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시간대별 발생률(표2 참조)은 점심시간 직전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시간대의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 총 2,923명의 사망자 가운데 18.5%인 542명이 사망했고, 2004년은 2,825명의 사망자 가운데 18.7%인 527명이 사망했으며, 2005년의 경우 지난 5월까지 1,013명의 사망자 가운데 17.6%인 179명이 사망하여 동 시간대의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 사망자의 발생이 월요일과 점심시간 직전인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 현상은 산업재해 발생건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표3 및 표4 참조)

산업재해 발생을 요일별로 살펴보면, 월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2003년의 경우 총 산업재해 발생건수 9만4,924건 중 17.1%인 1만6,211건이 발생했고, 2004년은 총 8만 8,874건 중 16.7%인 1만4,884건이 발생했으며, 2005년의 경우도 5월 말 현재 총 3만2,589건 중 17.9%인 5,833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의 시간대도

점심시간 직전인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2003년의 경우 25.6%인 2만4,297건, 2004

년 25.5%인 2만2,624건, 2005년의 경우도 5월까지 24.7%인 8,038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 연도별·요일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

발생요일	2003년	비율	2004년	비율	2005년5월	비율
일요일	5,974	6.29	5,573	6.27	1,939	5.94
월요일	16,211	17.07	14,884	16.74	5,833	17.89
화요일	15,373	16.72	14,530	16.34	5,134	15.75
수요일	14,912	15.70	13,677	15.38	5,193	15.93
목요일	14,545	15.32	13,823	15.55	5,105	15.66
금요일	15,308	16.12	14,709	16.55	5,337	16.37
토요일	12,601	13.27	11,678	13.13	4,048	12.42
총 계	94,924	100	88,874	100	32,589	100

표 4 | 연도별·시간대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

발생시간	2003년	비율	2004년	비율	2005년5월	비율
0~2시전	3,239	3.41	3,223	3.62	1,308	4.01
2~4시전	1,230	1.29	1,143	1.28	450	1.38
4~6시전	1,355	1.42	1,250	1.40	474	1.45
6~8시전	2,634	2.77	2,543	2.86	938	2.87
8~10시전	11,997	12.63	11,046	12.42	4,078	12.51
10~12시전	24,297	25.59	22,624	25.45	8,038	24.66
12~14시전	8,565	9.02	7,817	8.79	2,883	8.84
14~16시전	18,427	19.41	16,349	18.39	5,918	18.15
16~18시전	13,558	14.28	12,582	14.16	4,497	13.79
18~20시전	4,665	4.91	4,325	4.86	1,626	4.98
20~22시전	2,989	3.14	2,829	3.18	1,031	3.16
22~24시전	1,833	1.93	1,763	1.98	692	2.12
분류불능	135	0.14	1,380	1.55	656	2.01
총 계	94,924	100	88,874	100	32,589	100

# NEWS PLUS

##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우리협회는 지난 9월 4일 한경보 회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가졌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해 개선토록 하는 행사로 매월 4일 실시되고 있는 행사이다.

## »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 30%까지 허용

리모델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증축면적 상한선(9평)이 폐지되면서 중층(10~15층)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공사기

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하며 사업절차가 훨씬 간소하나 아무리 평형이 크더라도 증축 범위가 9평까지만 넓힐 수 있었기 때문에 전용면적 3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아파트가 드물었다. 전체 가구의 80%가 동의해야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데다 중대형 평형 소유자들이 수익성 낮은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 하지만, 리모델링 증축 제한이 없어지면서 중소형과 대형 평형이 섞여 있거나 대형으로 구성된 단지 가운데 재건축 사업 초기인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되고 개발이익환수제, 후분



양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각종 규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중층 아파트 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질 전망이다.

## ※ 리모델링 vs 재건축

지은 지 10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증축 리모델링은 20년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별도의 층이나 동을 증축해 가구 수를 늘리거나 내력벽을 철거해 두 채를 한 채로 통합할 수 없고, 재건축처럼 조합을 설립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지 전체가 아니라 동 별로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도 한 개 동에서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리모델링은 사업 절차가 간소하고 공사 기간도 재건축보다 훨씬 짧으며, 비용도 재건축의 60%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나 소형

## » SK건설 상반기 순익 478억 돌파

SK건설은 올 상반기 478억원의 당기순이익, 79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의 218억원에 비해 119.5%, 영업이익은 지난해 485억원에 비해 63.7% 증가한 것이다.

SK건설은 주택부문에서 지난해 평택 소사 2,717가구를 분양한 데 이어 은평 뉴타운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플랜트부문에선 12억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FUP 공사 등을 수주한 바 있다.



평형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이러한 규제도 없다.

» 상반기 재해를 전년보다 0.05% 감소한 0.37%로 집계되

올 상반기 산업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장의 재해가 다수를 차지해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최근 밝힌 2005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재해자수는 4만2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46명이 줄었으며 재해율도 0.37%로 전년동기 0.42%대비 0.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에 있어서도 1,21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81명 감소한 1,393명으로 나타났다. 사고 만인율도 1.12P로 지난해 1.35P와 비교, 0.23P가 감소했다. 재해자수는 제조업이 1만7,465명으로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6,898명으로 17%를 차지 그 다음 순위를 이었다. 올 상반기 산재사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광업에서만 재해율이 1.7% 가량 소폭 증가했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만4,662명의 산재재해자가 발생, 전체의 86.2%로 차지해 중소기업장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보여졌는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 환경보 회장 Seoul World Mayors Forum 2005 참석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우리협회 환경보 회장과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주요 시장이 참석한 서울 세계도시 시장포럼2005 행사가 지속가능성과 도시의 재생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특별시 주최가 되어 롯데호텔에서 개최 되었다.

9월 30일 오전 9시에 개최된 개회식에서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청계천 복원사업은 도심 하천을 되살리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환경과 도시계획, 문화와 도시경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사업이며, 환경과 생명이라는 열쇠로 도시를 재활성화하는 '패러다임 도전' 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진 시장원탁 회의에서는 세계적 언론이 서울을 "친환경도시"로 평가하고 있음에 서울시가 그간의 경험을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공유하는 자리로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 졌다.

전체 재해자의 68.5%인 2만7,574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사망자에 있어서도 666명(55%)에 달해 전체 사망의 절반을 넘었다. 이밖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재해자수는 50인 미만 사

업장에서, 재해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큰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288명의 재해자 및 8.5%의 재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 노동부, 석면 사용 엄격히 규제한다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신고시 석면 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석면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철거비용 상승을 회피하려는 업자들의 불법철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신고시 석면포함여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연내에 개정(건설교통부와 합의)될 예정이어서 석면함유 건축물의 철거현장 파악이 용이해져 불법철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허가물질인 백석면에 대해서도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사용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석면 사용허가사업장은 '05년 8월말 현재 24개소

※ 석면중 백석면은 제조·사용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석면·갈석면은 '00년 1월부터 제조 등 금지, 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은 03년 7월부터 금지

노동부는 석면 등 유해물질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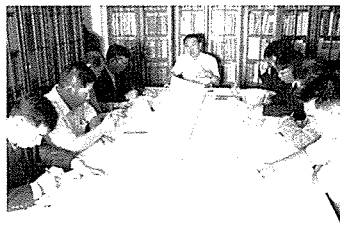
한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중 보건직 근로감독관(7급) 15명을 특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ILO의 석면협약(석면의 사용상의 안전에 관한 협약, 162호) 비준도 추진하여 석면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 ILO의 '석면의 사용상의 안전에 관한 협약'은 석면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의 건강검진·보호·예방에 관한 다양한 세부적인 조치를 규정

이를 위해 노동부는 노·사, 석면 관련 전문가 등으로 특별 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T/F 위원장으로는 석면에 대한 국내 최고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백남원 교수(서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 »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자 간담회 개최

제76회 건설안전기술사 시험 1차 합격자 간담회가 8월26일 우리협회



회장실에서 개최 되었다. 삼성건설 이용수 합격자등 8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한경보 회장은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최종 합격까지 최선을 다해 건설안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당부했다.

## » 건설업체 72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

최근 3년간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환산 재해율 이하인 삼성물산(주)와 대우건설(주), GS건설(주) 등 72개 건설업체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노동부는 27일 공사실적액 순위 200대 건설업체중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72개 건설업체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올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신규 건설공사에 대해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와 확인검사를 면제해 준다고 덧붙였다. 올해 선정된 72개 건설업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공사실적액 100위 이내가 대림산업(주), (주)포스코 건설, SK건설(주) 등 48개 업체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고 100위 이상 200위 이내 업체는 한림건설(주), 에이스종합건설(주), (주)동일토건 등 24개로 나타났다.



다. 이와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업체 스스로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토록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양호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도는 공사 착공전 추락·붕괴 등 공사중 예상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해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전안전성평가제도로 높이 31m이상 건축공사, 최대기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 터널공사, 댐 건설공사,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등 5종류의 고위험 공사에 적용된다.

» 새집증후군 유발 마감재, 접착제 사용금지

새집증후군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마감재와 접착제에 대한 사용이 11월 27일부터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와 극장, 공연장등 볼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는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마감건축재 및 접착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 노동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에 팀제 전면도입

최근 정부 내에서 책임과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팀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도 본부에 팀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여성 사무관을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파격인사를 지난 9월9일 단행하였다. 노동부는 김효순 사무관과 박성희, 이덕희 정책서기관을 신설되는 공공노사관계팀, 고용전략팀, 퇴직급여보장팀장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이는 공공노사관계팀장을 맡게된 김효순 사무관이다. 김팀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입안 과정에서 실무작업을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업무의 추진력을 인정받아 사무관으로서의 파격적으로 팀장으로 발탁되었다. 김팀장은 복잡하게 얽힌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잘 풀어오면서도 필요한 때에는 푼심 있게 밀고나가는 추진력도 갖추었다는 평을 받아왔다. 그동안 본부 과장급은 3급 또는 4급만 될 수 있었지만 팀제를 도입하면서 팀장 직급을 5급(사무관)까지로 확대하고 전면 공모를 통해 팀장을 선발한 결과 이와 같은 파격인사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노동부 직원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반응이어서 새로운 팀제에 대해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2실을 본부로 개편되고, 종전 30과, 1팀이 35팀, 1단, 1과 체제로 변경된다.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조직인 노동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급격한 조직구조의 변경을 피하기 보다는 본부의 정책기획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고용 관련 기능의 통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운영상에 있어서도 권한을 팀장과 팀원으로 대폭 위임함으로써 팀장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팀제의 기본 목적인 자기완결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성과제고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과장-계장-담당으로 운영되던 결재라인을 팀원 모두에게 고유의 업무를 분장함으로써 팀장-팀원의 2단계로 축소하여 신속한 의사결정도 피하고 있다고 조직개편의 의의를 밝혔다.

해 입법예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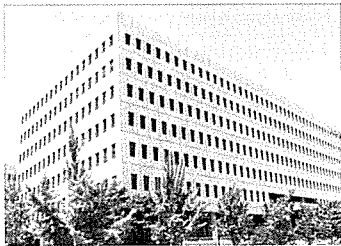
개정안에 의하면 아파트와 극장,

공연장 등의 바닥과 벽면에 사용되

는 페인트, 벽지, 장판 등 마감재와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방출되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해 신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또한,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관련해 종전에는 건축물의 용도, 높이에 따라 요구되는 내화성능이 다르지만 콘크리트와 같은 경우 내화성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내화성능별로 콘크리트 두께, 철근 피복 두께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류했다.

## » 건교부 6개 본부체제로 조직개편



건설교통부 조직이 13개국에서 6개 본부로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성과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8월1일부터 '본부장-팀제'를 도입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토, 토지, 주택, 도로, 철도, 항공 등 부문별로 국단위 조직을 운영해 국간의 정책조정기능이 취약하고 일사 분란한 조직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기능을 동일 본부장 산하로 통합, 본부

## » 박구준 부회장 한국안전학회 주최 추계학술발표회에 참석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후원한 2005년 한국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가 10월 6, 7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소재 휘닉스 파크에서 개최 되어 기계, 화공, 인간/시스템, 교통/재난/보안 등의 세부 주제별 72편의 주옥같은 논문과 동국제강과 삼성전자의 현장 안전기술 사례 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박길상 이사장의 '산업안전과 안전공단의 역할' 특별강연과 충북대 신창섭 교수와 서울산업대 이수경 교수 등에 의한 정책제안 연구보고 및 토론토 이어져 명실상부한 산·학·연이 함께 참여한 뜻 깊은 자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실무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친교를 다지는 돈독한 자리가 되었다.

장이 성과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현재 13개 국단위 조직을 6개 본부로 통합, 상호 업무연관성이 높은 유사기능을 동일 본부장이 총괄토록 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하고 권한과 책임한계가 명확한 조직으로 개편한다.조직 개편에 따라 신

설되는 본부는 ▲국토, 도시, 복합도시를 담당하는 국토균형발전본부 ▲주택, 토지, 복합도시 주거복지본부 ▲도로, 수자원, 철도 기반시설본부 ▲수송물류, 항공, 철도 물류혁신본부 ▲육상교통, 광역교통 생활교통본부 ▲건설경제, 기술안전 건설선진화본부 등이다.

#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 회원 및 직원등정
- 협회 업무 소개
- 조직도
- 기술지도부 업무 안내
- 기술자격증 보유현황
- 회원가입안내

### 조직도



### 기술자격증 보유현황

구분	건설안전 기술사	건축시공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토질및기초 기술사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구조 기술사	건축사	공학 박사	건축품질시 험기술사	건설안전 기사	건축 기사	토목 기사	건설재료 시험기사	계
계	18	4	5	2	1	1	1	1	1	14	14	5	1	68

### 장비 보유현황

보유기종 : 101종(총 보유점수 293점)

- ▶ 지중탐사장비 : GPR, 금속관탐지기, 관로누수탐사기, 록볼트측정기
- ▶ 정적 동적변위측정장비 : PSM-200, DT-615, MB-BV
- ▶ 콘크리트 조사장비 : TVS 2000ST, 강도시험기 (슈미트 햄머, ULTRA SONIC, UTM)
- ▶ 철근탐사장비 : IRS 150/400, RC-RADAR, TR-01
- ▶ 강재탐사장비 : SITESCAN 130, 와류탐상기, 자분탐상기
- ▶ 환경측정장비 : 주파수분석기, RION, SSU2000아, 복합가스측정기
- ▶ 측량장비 : 광파기, 레이저 레벨
- ▶ 보조장비 : HILTI GUN, 무전기, 발전기, 유속계, 수중카메라



# NEWS & PLUS

## 협회 업무 소개

### ■ 안전진단

#### ▷ 안전점검

-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 대 상 : 동법 제2조에 의한 1,2종 시설물
  - 정기점검 : 반기별 2회
  - 정밀점검 : 2년 1회 이상(건축물 3년마다, 수중항만시설 4년마다)

#### ▷ 초기점검

- 법적근거 : 영 제4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영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
- 과업범위 : -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 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 사항을 파악한다.
  - 항후의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 설정
  -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 대형공사의 정기안전점검

-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 대 상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의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 정밀안전진단

-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 대 상 : 공사완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1종 시설물
  - 정밀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 판정시

리모델링 시행시 공사착수 전 안전진단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 항만, 수리시설의 안전진단

#### ▷ 재건축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진단

- 법적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동시행령 제42조의 2, 제44조 / 동시행규칙 제32조의 2
- 대 상 : 재건축을 위한 노후불량주택

#### ▷ 공동주택 하자진단

- 법적근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3 / 동시행규칙 제11조의 2
- 대 상 : 1,2종 시설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 기술지도부 업무 안내

#### ▷ 재해예방 기술지도

-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
  -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120억원 미만의 건축, 플랜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
  -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150억원 미만의 토목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건설공사
- 전국 도서지방(단, 제주도 제외)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 기술지도를 체결치 않은 대상사업장의 제재사항

1. 기술지도계약 미 체결시 : 안전관리비 20% 환수(법 30조 1항)
2. 기술지도계약 지연 체결시 : 조정금액만큼 환수

3. 산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사전입찰자격심사(P,Q)시 감점 : 최고 -3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

· 대 상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2)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3)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4) 터널공사

5) 다목적 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건설 등의 공사

· 별 칙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미제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진단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대 상 : 1) 중대재해사업장 2) 50m 이상 터널공사  
3)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4) 200m 이상 교량공사

· 별 칙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안전컨설팅

· 대 상 : 건설회사 전사업장

· 업무 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2) 현장의 안전관리 실시 3) 안전교육 실시

■교 육

· 종합안전관리 및 안전경영진단 본사 및 현장을 망라 무재해 도달을 위한 안전관리 대행 또는 지원·지도

- 안전관리체계 정립 위한 제반지원

- 안전교육 교재개발 또는 강사지원

· K-OHSMS 18001 인증 심사원 양성과정

- 인증심사원 시범연수기관으로 지정(2001. 6. 19)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지정

· 안전관리 전문가 과정 - 안전관리전문가 양성교육

회원가입안내

■ 회원가입 및 연회비 납부안내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여러분의 회원가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진단 및 점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및 컨설팅, 건설안전교육 등으로 국내 최정상의 건설종합안전전문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회원으로서 건설안전의 선두주자가 되십시오.

■ 가입안내

●회비 : 입회비 100,000원, 연회비 50,000원, 종신회원 500,000원

●문의 : 회원실 TEL)02-3444-4570 FAX)02-3444-4855

●온라인 : 하나은행 210-071537-01204, 예금주 :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회비 미납 회원분들께서는 미납된 연회비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회원 여러분의 자택 및 직장 주소, 연락처 변경사항과 기타 공지사항 등을 바로 알려 주시면 협회지 '협회 소식'란에 게재하여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